Market Talks

교육 센터

주식 · 초급 · 15강 중 9강

주가는 왜 움직이는가

수요와 공급, 실적과 기대, 기업 뉴스, 시장 전체, 금리, 투자 심리까지, 모든 가격 움직임 뒤에 있는 힘을 살펴봅니다

읽는 시간 12분 퀴즈 8문항, 정답 포함

주식 · 초급 · 15강 중 9강

주가는 왜 움직이는가

한 문장 요약

단기적으로 주가는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더 적극적이거나 그 반대일 때 움직입니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대부분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관한 새로운 정보이며, 이 정보는 투자자들이 이미 예상하던 것과 비교됩니다. 기업 뉴스, 시장 전체의 움직임, 금리, 투자 심리가 모두 영향을 주며, 장기적으로 주가는 회사의 이익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매수자, 더 적극적인 매도자

3강에서 그 원리를 보았습니다. 매수자가 매도 호가를 계속 사들이면 가격이 오르고, 매도자가 매수 호가에 계속 팔면 가격이 내립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모든 가격 움직임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특정한 순간에 매수자나 매도자가 *왜* 더 적극적이 되는가입니다. 주가는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아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1주를 사면 다른 누군가는 1주를 팔기 때문에, 사고판 주식 수는 언제나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양쪽의 **적극성**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매수자는 더 비싸게라도 사려 하고 매도자는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내놓으려 하므로, 양쪽이 다시 합의할 때까지 가격이 오릅니다. 나쁜 뉴스가 나오면 그 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강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균형을 바꾸는 주요 뉴스와 힘을 살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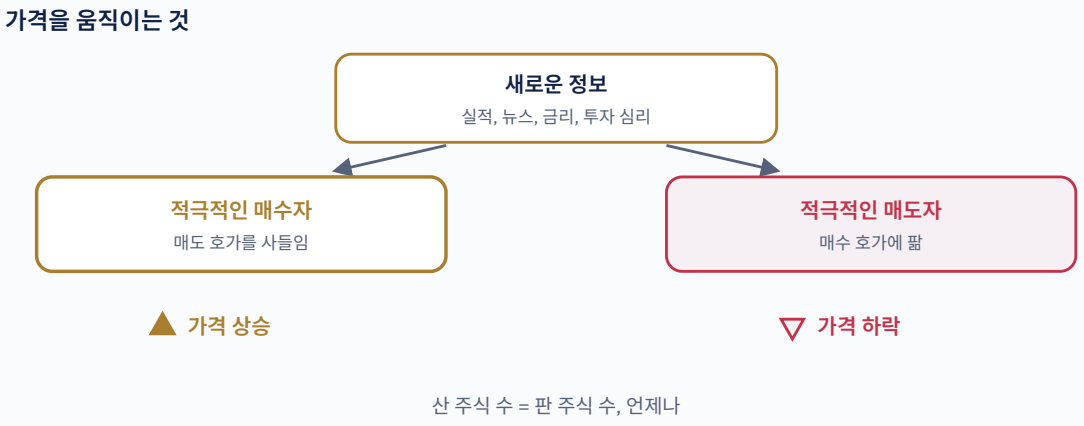

그림 1. 새로운 정보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바꿉니다. 가격은 양쪽이 다시 합의할 때까지 움직입니다.

가격은 미래를 봅니다

1강에서 보았듯이 주식은 사업의 한 조각이므로, 그 가치는 사업이 벌어들일 이익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말은 **앞으로**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벌어서 써 버린 작년 이익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기대하는 이익에 돈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설명됩니다.

- 회사가 지금은 적자를 내고 있어도, 투자자들이 나중에 큰 이익을 낼 것이라고 믿으면 매우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사상 최대 이익을 발표해도, 투자자들이 그보다 더 많이 기대했다면 주가가 내릴 수 있습니다.
- 신제품, 새 경쟁자, 금리 변화, 갑작스러운 위기처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일이라면 무엇에든 가격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 주가는 **기대**가 바뀔 때 움직입니다. 가격에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알고 믿는 것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새로운** 정보, 또는 기존 정보를 판단하는 방식의 변화뿐입니다.

실적: 결과와 기대의 비교

상장회사는 1년에 네 번 실적을 발표하며, 이 시기를 **실적 시즌**(earnings season)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그 회사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매출과 주당순이익(EPS) 추정치를 내놓는데, 이 추정치들의 평균을 **컨센서스**(consensus, 시장 예상치)라고 합니다.

실적이 나오면 시장은 이를 컨센서스와 비교합니다. 컨센서스보다 좋은 결과는 **예상치 상회**(beat), 나쁜 결과는 **예상치 하회**(miss)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대표 숫자 하나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직접 내놓는 다음 분기들에 대한 전망인 **가이던스**(guidance)도 꼼꼼히 봅니다. 가이던스가 미래에 관해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실적 시즌은 중급 과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림 2. Bright Bean은 지난 분기 추정치를 웃돌았지만, 미래 전망이 약해지자 주가가 내렸습니다.

예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도 떨어진 주가

애널리스트들은 Bright Bean(6강에 나온 가상의 종목 BRBN)이 이번 분기 EPS **$0.48**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 마감 후 회사는 **$0.52**를 발표합니다. 분명한 예상치 상회입니다. 그런데 같은 발표에서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내년 전망을 낮춥니다. 다음 날 아침 BRBN은 **6% 낮게**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은 지난 분기에 관한 것이었고, 나쁜 소식은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돈을 내는 대상은 미래입니다.

기업 뉴스

실적 말고도 많은 종류의 기업 뉴스가 주가를 움직이며, 그 움직임은 흔히 급격합니다.

- **제품과 계약:** 성공적인 출시, 실패한 신약 임상시험, 큰 신규 고객 확보.
- **인수합병:** 회사가 인수되기로 합의하면 보통 주가가 인수 제안 가격 쪽으로 뜁니다. 인수자는 보통 시장 가격보다 더 많이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인수하는 회사의 주가는 때때로 내립니다.
- **경영진:** 최고경영자의 취임이나 갑작스러운 사임.
- **법률과 규제:** 벌금, 소송, 조사, 업계에 대한 새 규칙.
- **애널리스트 의견:** 잘 알려진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 상향이나 하향은 하루나 이틀 동안 주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지수 변경:** 회사가 S&P 500 같은 주요 지수에 편입되면 인덱스 펀드가 그 주식을 사야 하므로, 편입일 전후로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의 크기는 뉴스가 얼마나 뜻밖인지, 그리고 기대 이익을 얼마나 바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널리 예상되던 뉴스는 가격을 아주 조금만 움직이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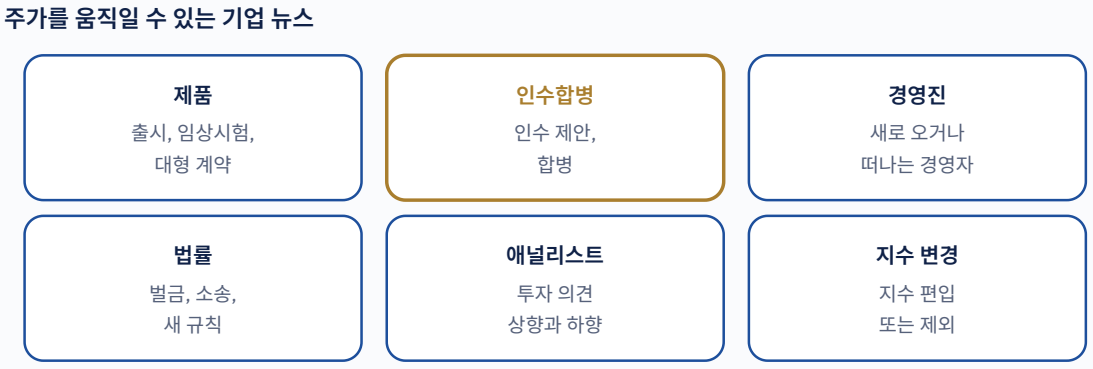

그림 3.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주요 기업 뉴스입니다.

시장 전체와 섹터

개별 주식이 혼자 움직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날에 한 종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단일 요인은 **시장 전체**의 방향입니다. 시장이 나쁜 날 S&P 500이 2% 떨어지면, 대부분의 주식이 저마다의 뉴스와 상관없이 함께 떨어집니다. 같은 **섹터**(sector, 업종)의 주식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 회사 한 곳이 수요가 강하다고 발표하면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흔히 오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한 종목이 보통 시장과 얼마나 함께 움직이는지를 **베타**(beta)라는 숫자로 잽니다.

- 베타 **1**은 그 주식이 시장과 비슷한 만큼 움직여 왔다는 뜻입니다.
- 베타 **1.5**는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시장의 약 1.5배만큼 움직여 왔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기업은 흔히 베타가 높습니다.
- 베타 **0.5**는 시장의 약 절반만큼 움직여 왔다는 뜻입니다. 유틸리티와 식품 회사는 흔히 베타가 낮습니다.

베타는 과거를 바탕으로 한 평균일 뿐입니다. 특정한 날에는 주식이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베타가 높은 주식을 보유하면 시장 전체가 움직일 때 더 큰 파도를 타게 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유용한 숫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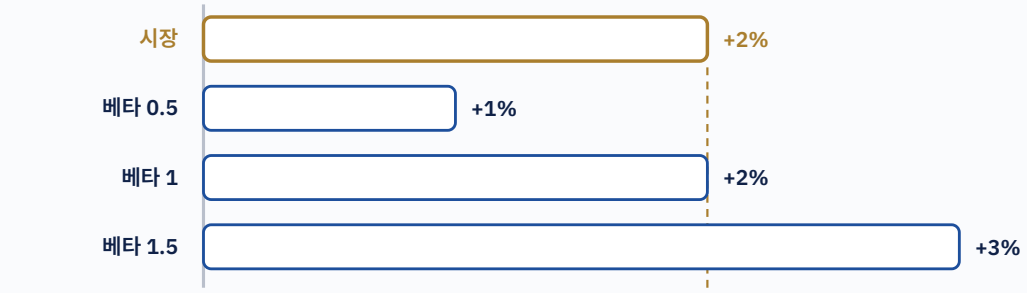

그림 4. 베타는 한 주식이 시장과 비교해 얼마나 움직여 왔는지 보여 줍니다.

금리와 경제

어떤 힘은 거의 모든 주식을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금리**(interest rates)로, 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같은 중앙은행이 정합니다. 금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주식에 영향을 줍니다.

- **경쟁:** 예금과 채권이 더 많은 이자를 주면, 상대적으로 주식의 매력이 줄어듭니다.
- **비용:**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그 고객의 차입 비용이 커져 성장이 느려지고 이익이 줄 수 있습니다.
- **미래의 가치:** 금리가 오르면 몇 년 뒤에 기대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익이 대부분 미래에 있는 고성장 기업이 금리가 오를 때 흔히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2022년이 분명한 예입니다.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고 기준금리를 일곱 번 올려, 0% 근처에서 **4.25%~4.50%**까지 높였습니다. S&P 500은 그해 **19.4%** 떨어져 2008년 이후 최악의 해를 기록했고, 기술주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용, 물가, 성장률 같은 경제 지표가 시장을 움직이는 주된 이유는,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중앙은행의 다음 행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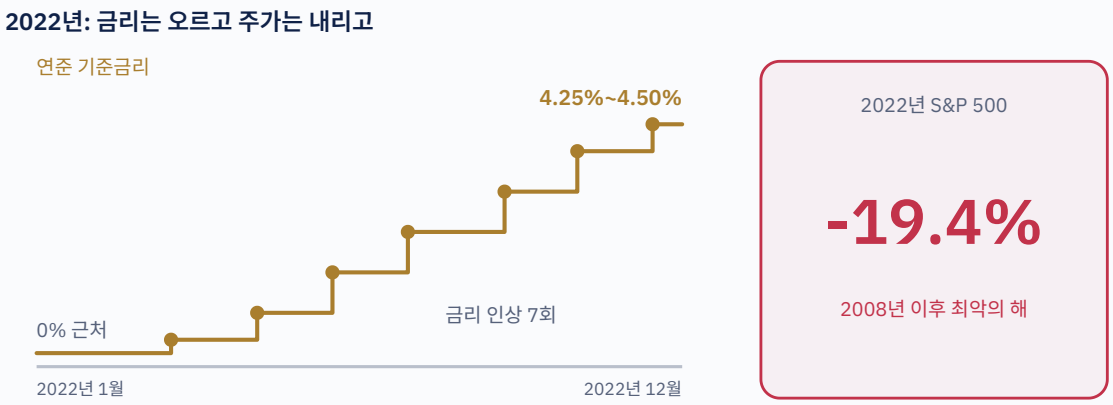

그림 5. 2022년 연준은 금리를 일곱 번 올렸고, S&P 500은 2008년 이후 최악의 해를 보냈습니다.

투자 심리: 공포와 탐욕

투자자도 사람이고, 사람은 늘 침착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모두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면, 낙관론이 가격을 이익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이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 투자자들은 거의 무엇이든 팔고, 가격은 사업의 가치보다 훨씬 낮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분위기를 **투자 심리**(market sentiment)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몇 달은 투자 심리가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2020년 2월 19일**의 고점에서 **2020년 3월 23일**의 저점까지, 투자자들이 깊고 긴 경기 침체를 걱정하면서 S&P 500은 한 달 남짓 만에 약 **34%** 떨어졌습니다. 이후 중앙은행과 정부가 대규모 지원에 나섰고, 지수는 저점에서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0년 8월**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바닥 근처에서 공포에 질려 판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확정했고, 회복을 놓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투자 심리는 가격을 양방향 모두 극단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뒤의 강의에서 설명하듯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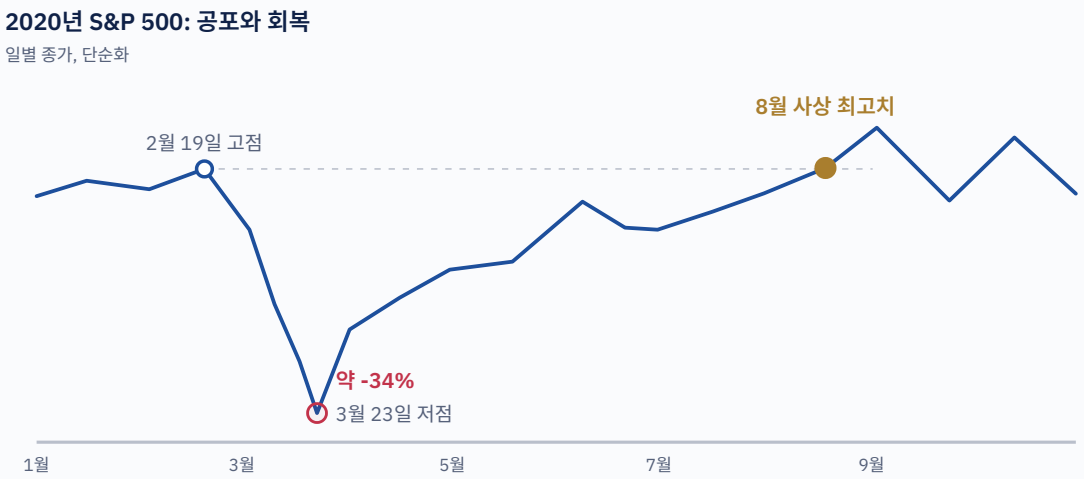

그림 6. 2020년 S&P 500은 한 달 남짓 만에 약 34% 떨어진 뒤, 8월에 사상 최고치를 회복했습니다.

단기의 소음과 장기의 가치

하루하루 보면 주가는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가는 헤드라인, 소문, 대량 주문, 분위기 변화에 반응하고, 이런 움직임의 상당수는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몇 년 단위로 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회사는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고, 이익이 줄어드는 회사는 주가가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Warren Buffett의 스승인 투자자 Benjamin Graham은 이를 유명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어떤 주식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세는 투표 기계와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진짜 가치를 재는 저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관점 모두 중요합니다. 트레이더는 뉴스, 모멘텀, 매수자와 매도자의 균형 같은 단기 움직임을 다루며, 중급 과정에서 차트와 거래량을 통해 이를 살펴봅니다. 장기 투자자는 이익과 가치에 집중합니다.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힘이 그 게임을 움직이는지 아는 것이 모든 가격 움직임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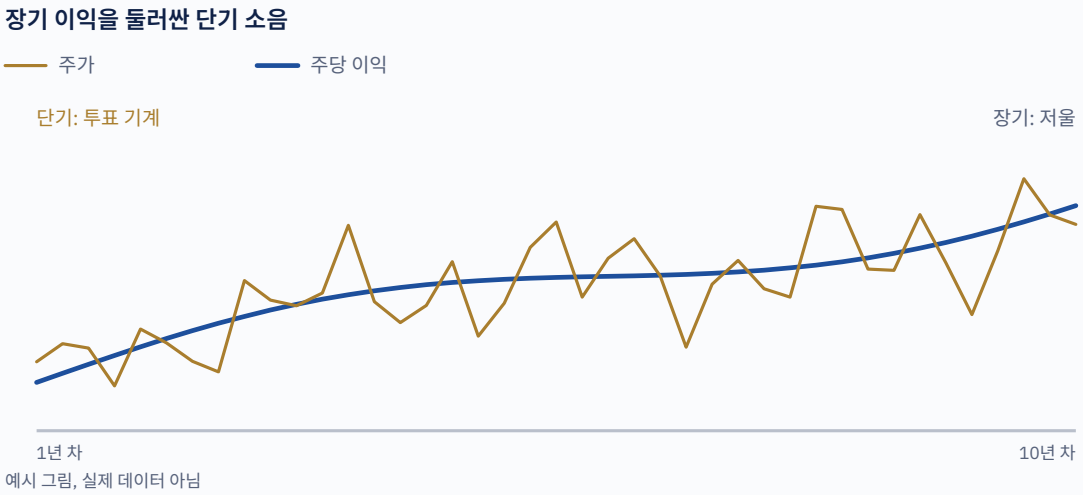

그림 7. 짧은 기간에는 가격이 크게 출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레이더에게 왜 중요한가

- **뉴스 자체보다 뜻밖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가격은 실제로 일어난 일과 예상했던 일의 차이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컨센서스를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장부터 확인합니다.** 지수가 약하면 좋은 뉴스가 나온 종목도 함께 끌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개별 종목을 보기 전에 S&P 500, Nasdaq-100, 그리고 해당 섹터를 먼저 봅니다.
- **일정을 지켜봅니다.** 실적 발표일, 중앙은행 회의, 주요 경제 지표는 미리 알려져 있으며, 가장 큰 움직임과 갭은 대개 이때 생깁니다.
- **투자 심리는 지나치게 움직입니다.** 공포나 흥분이 이끄는 움직임은 양방향 모두 합리적으로 보이는 수준보다 더 멀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견딜 수 있도록 포지션 크기를 정합니다.

핵심 용어

기대(expectations)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바뀌면 가격이 움직입니다.
실적 시즌(earnings season)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실적을 발표하는, 분기마다 돌아오는 몇 주입니다.
컨센서스(consensus)	회사 실적에 대한 애널리스트 추정치의 평균입니다.
예상치 상회(beat)와 예상치 하회(miss)	컨센서스 추정치보다 좋은(beat) 또는 나쁜(miss) 실적입니다.

가이던스(guidance)	회사가 직접 내놓는 향후 매출이나 이익 전망입니다.
섹터(sector)	은행, 에너지, 기술처럼 같은 업종에 속한 회사들의 묶음입니다.
베타(beta)	한 주식이 시장 전체와 비교해 얼마나 움직여 왔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금리(interest rates)	돈을 빌리는 비용으로, 주로 연준 같은 중앙은행의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 심리(market sentiment)	공포에서 낙관까지,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핵심 정리

1. 모든 가격 움직임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적극성이 바뀌는 데서 나옵니다. 사고판 주식 수는 언제나 같습니다.
2. 주가는 미래를 봅니다. 회사의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가 바뀔 때 움직입니다.
3. 실적은 컨센서스와 비교한 결과에 따라 주가를 움직이며,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가 지난 분기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 기업 뉴스, 시장 전체, 섹터, 금리, 투자 심리가 모두 가격을 움직입니다. 2022년에는 금리 상승이 S&P 500을 19.4% 끌어내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5. 단기적으로 가격은 분위기와 헤드라인에 따라 출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력 점검

각 문제에 답을 하나씩 표시하세요. 해설이 포함된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markettalks.info에서 온라인으로 퀴즈를 풀고 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주가가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아서" 올랐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1주를 사면 누군가 1주를 팔기 때문에 수는 언제나 같다. 달라지는 것은 양쪽이 얼마나 적극적인가이다
- B 매도자만 가격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 C 가격은 거래소가 정하기 때문이다
- D 매수자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2. 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주로 무엇에 돈을 내는 것인가요?

A 작년 이익
B 주권 종이
C 회사의 사옥만
D 회사의 기대 미래 이익

3. 애널리스트들은 EPS $0.48를 예상했고 회사는 $0.52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A 예상치 하회(miss)
B 예상치 상회(beat)
C 갭
D 가이던스

4. Bright Bean이 추정치를 웃돌았지만 내년 전망을 낮췄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예상치를 웃돌면 언제나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B 거래소가 예상치 상회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C 낮아진 가이던스가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를 바꾸며, 이것이 지난 분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D 발표가 장 마감 후에 나왔기 때문에

5. 어떤 주식의 베타가 1.5입니다. 시장이 2% 오르면 평균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나요?

A 3% 떨어진다
B 약 1% 오른다
C 약 3% 오른다
D 움직이지 않는다

6. 금리가 오르면 왜 고성장 기업이 흔히 가장 큰 타격을 받나요?

A 배당금을 가장 많이 주기 때문에
B 고객이 없기 때문에
C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D 가치의 상당 부분이 먼 미래의 이익에서 나오는데, 금리가 높으면 그 이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7. 2022년 연준이 금리를 0% 근처에서 4.25%~4.50%로 올리는 동안 S&P 500은 어떻게 되었나요?

A 19.4% 올랐다
B 변동이 없었다
C 19.4% 떨어졌다
D 80% 떨어졌다

8.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S&P 500은 약 34% 떨어졌습니다. 언제 사상 최고치를 회복했나요?

A 약 5개월 만인 2020년 8월
B 10년 뒤
C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D 다음 날

정답 및 해설

1 A

1주를 사면 누군가 1주를 팔기 때문에 수는 언제나 같다. 달라지는 것은 양쪽이 얼마나 적극적인가이다

모든 거래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습니다. 가격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움직이며, 양쪽이 다시 합의할 때까지 이동합니다.

2 D

회사의 기대 미래 이익

주식의 가치는 사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이익은 이미 벌어들인 것이며, 가격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바뀔 때 움직입니다.

3 B

예상치 상회(beat)

컨센서스 추정치보다 좋은 실적은 예상치 상회, 나쁜 실적은 예상치 하회입니다.

4 C

낮아진 가이던스가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를 바꾸며, 이것이 지난 분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미래 이익에 돈을 냅니다. 약해진 전망은 좋았던 지난 분기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C

약 3% 오른다

베타 1.5는 그 주식이 시장의 약 1.5배만큼 움직여 왔다는 뜻이므로, 시장이 2% 움직이면 약 3%입니다. 평균일 뿐입니다.

6 D

가치의 상당 부분이 먼 미래의 이익에서 나오는데, 금리가 높으면 그 이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먼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며, 성장 기업의 이익은 대부분 미래에 있습니다.

7 C

19.4% 떨어졌다

S&P 500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고 금리를 일곱 번 올린 2022년에 19.4% 떨어져, 2008년 이후 최악의 해를 기록했습니다.

8 A

약 5개월 만인 2020년 8월

중앙은행과 정부가 나선 뒤 지수는 2020년 8월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바닥 근처에서 공포에 질려 판 투자자들은 회복을 놓쳤습니다.

출처

- AP 통신, S&P 500, 2008년 이후 최대 손실로 암울한 한 해 마감(2022년 12월 30일): https://www.fox13now.com/news/national/s-p-500-closes-out-dismal-year-with-worst-loss-since-2008
- Reuters, S&P 500 역사상 가장 짧은 약세장과의 작별(2020년 8월): https://www.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say-goodbye-to-the-shortest-bear-market-in-sp-500-history-2270085
- Nasdaq, 용어 사전: 베타: https://www.nasdaq.com/glossary/b/beta

Market Talks

계속 학습하기

다음: 10강 배당금

이 강의는 MARKET TALKS 교육 센터의 주식 과정에 속합니다. 초급 강의는 무료이며 강의마다 퀴즈와 다운로드 가능한 PDF가 제공됩니다. 중급과 고급 강의는 회원 전용입니다.

교육 센터
기초 원리부터 고급 주제까지 다루는 강의

시장 분석
주요 시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리포트
비트코인, 금, 은, SPX 등

markettalks.info

텔레그램 @MARKET_TALKS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이 문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 2026 MARKET TALKS. 이 PDF는 수정 없이 자유롭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